현대소설연구(제93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4.03.93.253

허기의 정동

-이청준의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연구*

정 미 숙**

요약

이청준 소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 나타난 '허기'의 정동 연구를 목표로 한다. 주인물 '이준'을 비롯한 작중 인물들의 특이한 '허기' 정동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동의 신체성을 강조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정립한 '정서-느낌-정동'의 순환적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준'은 '쑥스러움'이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정서를 드러낸다. '쑥스러움'은 허기 정동의 일환으로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의 무의식적 관념인 느낌을 표출한 것이다. 이준은 쑥스러움의 대상을 '여성적인 것'으로 치환하고, '외설'로 공격한다.

주인물 '이준'의 특이한 '허기' 정동은 그 시절을 산 동기들과 함께 체험한 것이다. 어린 이준이 겪은 '허기'는 일차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몰린 배고픔의 원초적 정서이다. 이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알게 된 쾌감은 '느낌'으로 각인된다. '이준'이 대학생이 되어 선택한 자발적 허기는 현실 부조리에 저항하는 방법적 실천인 단식으로 행해지면서 의지의 공동체와 공감, 연대하며 가능성과 역동성의 정동으로 펼쳐진다.

작중인물인 왕과 윤일, 그리고 은숙 또한 허기 정동에 사로잡혀 있다. 세느 다방의 왕은 현실적 생성을 포기하고 있다. 그의 단식이 무엇을 향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윤일과 은숙의 허기 정동은 두 사람 사이의 정서와 느낌의 낙차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진폭이 진정한 전이와 정념을 불가능하게 한다. 세느 다방의 '우리'는

* 이 논문은 2022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7049015)

* 한국해양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해체된다. 왕은 사라지고, 은숙은 자살하고, 윤일은 낙향한다. 그들은 상징적 죽음에 처한다.

그들의 죽음 이후 이준은 현실과 몽상 간의 차이를 깨닫는다. 관념이 되어버린 '허기' 정동의 수정이 긴요하다. 그는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인 소설을 발표하며 죽음에서 유예된다. 찾고 수정하는 과정을 암시하는 항동성(homeodynamics)의 도입으로 정체된 허기 정동을 전환하고 자신의 존재 감각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주제어: 이청준, 정서, 느낌, 정동, 허기, 안토니오 다마지오, 항상성, 항동성

목차

1. 머리말
2. '쑥스러움'의 정서와 외설
3. '허기' 정동의 탐문과 질문
4. '항동성'인 허기, 생성의 정동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이청준 소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 나타난 '허기'의 정동 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청준 소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은[1] 다양한 관점으로 연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불안 의식, 메타텍스트적 형식 구조와 그 효과를 정신분석의 관점에 의존한 분석, 한국전쟁의 원체험과 재구성, 소설의 배경과 창작 동기, 단식모티프를 중심으로 금욕의 정체와 윤리성 문제, 허기를 증상과 징후로 읽는 방법도 다루고 있다.[2]

1) 텍스트는 이청준,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문학과 지성사, 2012.
2) 우찬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불안 의식 연구」, 『어문연구』 제33권 제2호, 2005.
강동호, 「전이의 소설학, 권력의 한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0, 2016.

최근에 이르러서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을 비롯한 이청준 소설의 정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남성 주체의 수치심과 작가의 문학적 지향과 관련하여 논의하거나 남성 주인공의 여성 몸에 집중한 혐오적 시선을 주목하기도 한다. 또한 이 소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강조되는 특이한 감정인 '쑥스러움'에 초점을 두고 이를 화자의 성장과 연관한 주체적 감정의 변모로 해석하기도 한다.[3]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의 고유하고 핵심적인 정동인 '허기'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해석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된다. 허기 정동은 단순하지 않다. '허기'는 육체적, 정신적 결핍의 상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소설의 주인물 '이준'을 비롯한 작중 인물들의 특이한 '허기' 정동을 규명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정립한 '정동'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다마지오의 '정서-느낌-정동'의 순환적 해석과정은 정동의 신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인간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문제인 심신 문제(mind-body problem)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정동'은 문맥에 따라 정념, 감정, 정서, 느낌 등의 단어로 쉽게 대체되고 문맥에 자연스럽게 섞여 구분되지 않는다.[4] '정서'라는 말의 일반적인

김지혜, 「한국전쟁의 원체험과 재구의 변주」, 『어문연구』 88, 2016. 6.
권보드래,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한국문학연구』 39집, 2010.
설혜경, 「이청준 소설에서의 금욕의 정체와 윤리성 문제」-단식모티프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66집, 2015. 9. 30.
김지혜, 「이청준 소설에 나타난 징후적 배앓이와 타자의 시선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8집 14권3호, 2010. 9.
박진영, 「군사주의적 발전주의와 증상으로서의 글쓰기- 이청준의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22집 제1호, 2021. 5.

3) 연남경, 「남성 주체의 수치심과 윤리의 행방- 이청준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의 여성 재현에 주목하여」, 『이화어문논집』, 제 49집, 2019.
김성경, 「이청준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 나타난 지식인 남성주체의 젠더의식 · 독신 직장여성의 '몸'이미지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4, 2018.
홍진석, 「주변부 서사의 형성과 자기 진술의 회복-이청준의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80, 2019.

의미가 '느낌'의 개념까지도 아우르는 경향이 사실이나, 다마지오에게 있어 정서와 느낌은 분명 다르다. '정서'(emotion)는 배고픔, 목마름, 고통 같은 원초적 상태와 공포, 분노 같은 정서적 상태와 행위 또는 움직임을 말한다. '느낌'(feeling)은 정서적 상태 다음에 발생하거나 그와 동시에 발생하는 마음의 무의식적 상태를 말한다. 뇌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사적인 현상이다.[5] 느낌은 "일차적으로 정서 또는 관련 현상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통증이나 쾌락의 경험"[6]이고 느낌의 본질은 관념—신체에 대한 관념, 특히 신체의 특정 상태에 대한 관념, 신체의 내부와 특정 상황에 대한—이다.[7] 다마지오는 '느낌'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느낌에 대한 느낌'을 '정동'으로 표현하여 사용한다. 정동(affect)은 "느낌으로 변화되는 아이디어들의 세계"[8]이다. 다마지오의 '정동'은 '느낌을 안다는 느낌' 즉 앎(knowing)을 지향한다.

이청준의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은 자서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나 자서전은 분명 아니고 "나 자신을 포함한 그 시절 젊은이들의 삶과 얼룩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9]이다. 작중 인물들이 '허기'라는 정동에 싸여 있어 그들의 내면 파악도 쉽지 않다. 영육의 결핍과 갈망을 장착한 복잡한 '허기' 정동의 다면적 분석을 통해 주요 작중 인물들의 의식/무의식적 행동과 반응의 의미를 심오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신분

4) 정동(情動;affect)은 용어에서부터 연구자와 번역자에 따라 이견을 보인다. 정동 이론에 대한 개괄적 소개는 정미숙, 「'정동'은 '역동'이다」, 『비평과 이론』, 제22권 1호 통권 제41호, 2017, 339-344면.

5) 안토니오 다마지오, 임지원 옮김, 『스피노자의 뇌』, 사이언스북스, 2007, 38-41면. 정서는 공개적이어서(표정, 목소리, 특정 행동 등)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느낌은 소유자를 제외한 어떤 사람도 볼 수가 없다. 정서는 몸이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한다. 한편 느낌의 무대는 마음이다.

6) 위의 책, 8면.

7) 위의 책, 107면.

8) 안타니오 다마지오, 고현석 옮김, 『느끼고 아는 존재』, 흐름출판, 202, 13면.

9) 이청준,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장락, 1994, 254-55면.

석학적 이론과 부수 정동 이론을 보완, 활용하려고 한다.

지금껏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의 '허기' 연구는 정동 연구로 나아가지 못했다. 주인물 이준의 '허기'에만 비중을 두거나, 글쓰기 욕망에 이르는 과정으로 몰아가는 인상도 준다. 이에 본고는 주인물과 주요 작중인물들의 허기 정동을 함께 살피면서 허기 정동의 실체와 현실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대의 문제와 개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출구를 모색하고자 했던 이청준 특유의 의미 변용[10]의 기저인 '허기 정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 '쑥스러움'의 정서와 외설

이청준 소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의 구성은 흥미롭다. 10장으로 구성된 이 소설은 주인물 '이준'이 '새여성사'라는 잡지사에 사직서를 내고 유예 휴가를 보내는 10일간의 여정을 담고 있는데 전후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그해 가을')를 배치하고 있다. '이준'은 직장을 그만두고 여대 근처에서 하숙하면서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한다. 주변 상황을 낯설고 부조리하다고 느끼면서 '쑥스러움'의 '정서'(emotion)[11]를 표출한다.

> 아, 이 동네 이 거리 이 다방에서는 아 해도 쑥스럽고 어 해도 쑥스럽

10) 홍정선, 「소설의 원형, 원형의 소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문학과 지성사, 2014, 312면.

11) 'emotion'은 감정 감성 정서 등 다양한 말로 번역된다. 이 책에서는 '정서'라는 용어로 번역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에 따르면 emotion이라는 단어는 밖을 뜻하는 라틴어 어근(e)와 움직이다라는 뜻의 'movere'가 합쳐서 생겨난 말이다. 다마지오는 뇌 안의 뉴런들을 활성화하는 모든 외부 자극과 내부 자극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을 'emotion'(정서)이라고 정의한다. 다마지오는 철저하게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정서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고현석옮김, 『느끼고 아는 존재』, 흐름출판, 2021, 10면.

다. 그것은 이 동네에 세계 유수의 여자대학이 자리해 있고 그 학생들이 온통 온 동네 하숙집과 거리와 아이스크림집과 다방들을 깡그리 다 점령해버린 때문일 것이다. (14)

그가 토로하는 '쑥스러움'은 여자대학과 여대생들이 이 동네를 점령해버린 까닭에 있다. 여자대학교 주변 거리는 양장점, 구둣방, 양품점, 미장원, 다방, 제과점 등 소비지향적[12] 풍경으로 가득하다. 반면에 책방은 좀체 눈에 띄지 않거나, 문방구점 비슷하게 옹색하다. 이런 대비적 풍경도 견디기 힘들다. '먹거리'에 관한 것은 더욱 그러하다. 먹거리 상점에 사철 학생들이 붐비는 것과 '입물개'를 신문 봉지에 싸 들고 다니는 것도 보기 힘들다. 먹거리와 입물개에 대해 보이는 이준의 거부적 정서는 그가 대학 시절에 행했던 진지한 단식 경험과 연관된다.

'쑥스러움'의 정서는 그가 상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질적 환경에 대한 실망과 거부감이다. 낮에는 자본주의의 충실한 상품 전시장 같고 밤에는 유흥가를 방불케 하는 여대 주변 환경의 무차별적 풍경은 곤혹스럽다. 이런 서술과정에서 여대생들의 모습을 진지한 것을 견디지 못하며 가볍고 재미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는[13] 치우친 시선은 독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정도이다.

여대 주변 풍경에 대한 비판적 시선의 기저에는 '여성적인 것'에 대한 편견과 '여성 몸'에 대한 혐오가 전제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이곳으로 옮겨 오기 전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사직 이유가 비합리적인 잡지사 경영방식과 더불어 '여성 동료들' 때문이다.

12) 여성의 소비성향은 거의 보편적인 특징(거의 본성)으로 기술되고 있다. 로버트 보콕, 임건열 옮김, 『소비-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시공사, 2002, 151면.

13) 연남경, 「남성 주체의 수치심과 윤리의 행방- 이청준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의 여성 재현에 주목하여」, 『이화어문논집』, 제49집, 2019, 145면.

> 나의 역겨움은 그 모든 일이 어김없이 여자에 관한 것뿐이라는 점이었다. 나는 언제나 여자에 관한 것만을 생각하고 여자를 만나서 여자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야 했다. 간혹 남자를 만나게 되는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경우도 이야기의 내용은 여자였다. 나로선 그것이 여간 견디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나중에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어떤 두려운 느낌이 들어올 지경이었다. (74)

그가 옮긴 직장 '새여성'은 여성을 위한 잡지사이다. 이 잡지사는 여성과 즐겁고 풍요로운 세상에 대해서만 공헌하려고 한다. 상위직을 차지하며 잘 다니고 있는 직원은 여성들 뿐이다. 큰 자부심으로 분골쇄신 일하며 장기근속의 공로로 편집국 편제상의 상좌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는 그녀들은 이준이 알고 있는 기존의 여성상과도 다르다. 대부분 여성이 일에만 몰두한 탓에 결혼 같은 건 아예 잊어버린 것처럼 늙어가고 있다는 점도 당황스럽다. 이준은 사장의 조카이자 여직원들의 수장인 '미스 염'에 대한 불만을 그녀 몸에 대한 혐오로 드러낸다.

> 우리는 수시로 그 미스 염의 털 없는 겨드랑 땀과 살주름을 목도하지 아니치 못하게 되곤 한 것이 없다. 그것이 얼마나 역겹고 견디기 힘든 것인지는 이제 더 이상 상상에나 맡겨야 할 일이지만 말이다. (83)

미스 염에 대한 그의 비판적 관점은 육체적이며 윤리적이다. 예문의 "미스 염의 털 없는 겨드랑 땀과 살주름"은 미스 염의 은밀한 다른 부위[sex]를 연상하게 한다. 미스 염의 몸이 '비대한 데다 푸르스름하게 튀어나온 잇몸'을 지녔고 '흥분한 사람처럼 벌건 혈색'을 지닌 것도 못마땅하고, 더위를 참지 못하여 여름에 선풍기를 혼자 끌어다 사용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역겹다. 이준은 그녀를 늙은 처녀들이 보이는 어떤 '결핍감'이나 '불결감'에다 '정갈스럽지 못한 분위기'를 빚고 다니는 도가 가장 심한 여

성이라며 혐오한다.

혐오는 일반적으로 음란물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져 왔다.[14] 혐오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외설'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외설적인 시선으로 혐오하는 직장 속 그녀들은 전혀 불결하지 않다. 성적 욕망에도 자유롭다. 적령기에 결혼하여 가부장의 성적 지배를 받으며 젠더 역할에 골몰하던 기존의 여성상과도 거리를 갖는다.

> 개고기란 물론 보신탕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갈태가 그 개고기를 먹었다고 할 때는 대개 다른 뜻이 있었다. (중략) 그러다 보니 끝내는 그 여성 동무들도 '개고기를 먹었다'는 말의 진짜 뜻을 알아듣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녀들은 여전히 아는 척 모른 척 우리 둘을 가리켜 '이 징그러운 개고기 친구들'이라 노골적인 허물을 일삼았고, 갈태 또한 그것을 조금도 난처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게 징그러워하고 피하는 미스들을 '망할 년들! 진짜 개고기 맛도 모르는 년들이!' 어쩌고 마구 험한 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84)

그들은 매매춘을 상징하는 은어인 '개고기를 먹었다'라고 떠들며 여성들을 희롱한다. 속뜻을 막연히 짐작하고 피하는 여성 동료들을 향해 '망할 년들! 진짜 개고기 맛도 모르는 년들이!'라며 폭언을 퍼붓는다. 평소에도 "망할 년! 죽일 년 썩을 년"이라 지칭하는 그들의 야비한 성적 공격의 이유는 그녀들이 '윤리적 잡년'이기 때문이다. 윤리적 잡년(ethical slut)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성취하는 여성을 말한다. 그녀들은 자유롭고 열정적이며 성욕이 왕성할 수도 있고 왕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강제된 모노가미(monogamy)를 넘어서는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에 흥미를 가지는 여성들을 말한다.[15]

14)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141면. '음란'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불결함을 뜻하는 라틴어(caenum)에서 기원한다.

이준과 갈태, 두 남성의 이해하기 힘든 공격성(Aggressiveness)은 자신들의 구성적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다.[16] 목표도 없고 직장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한 채 성적 욕망에 휘둘려 이를 지저분하게 처리하고 다니는 자신들의 외설적 행동에 대한 방어적 표출이다. '나'(이준)는 잡지의 방향도 알 수 없는 여성 잡지사에 근무하면서 끝없이 여성적인 것만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까지 어떤 두려운 느낌"인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다. 이는 거세공포와 유사하다. 직장 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용맹한 그녀들이 여성이라는 사실은 거세의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17]

그런 와중에 "편집국 직원 전원은 반드시 명찰을 부착한 회사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하라"는 염 사장의 지시가 노골화되자 마침내 사직을 결심한다.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시스템에 획일적 군사문화를 접목하는 일방적 경영방식과 이에 무신경하게 협조하는 상위직 여성들의 태도에 강한 거부감을 느낀다. 마침내 회사를 나온다. 그는 사직 이후에도 내심 잡지사의 처분을 기대하는, 나약하고 모순적인 모습을 보인다.

알듯이 5.16 쿠테타에 의해 집권한 박정희 군사독재는 경제성장을 우선 목표로 하는 조국 근대화 노선을 펼쳤는데 이는 사회 전역에 발휘되었다. 196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는 압축경제정책의 성과가 가시화하기 시작한 67년 무렵을 기점으로, 60년대 전반과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를 띠기 시작했다. 개발 건설 생산의 성장주의가 위력을 떨치던 60년대 중후반은 명백히 빈곤에서 탈피한 번영의 환상이 지배한 시기로 보인다.[18] 자본주

15) 재닛 하디 · 도씨 이스턴 지음, 금경숙 · 곽규환 옮김, 『윤리적 잡년』, 해피북미디어, 2020, 12-18면.

16) Lacan, Jacques, *ÉCRITS*, Trans. Bruce Fink, N.Y.: Norton, 1998. p.83.

17) 거세의 실제적인 효과는 여성의 성기를 지각한 다음에야 뒤따라오며 인정한 다음에야 일어나게 된다. 김종주 옮김, 『라깡 정신분석의 핵심용어』, 하나의학사, 2003, 63면.

18) 권보드래,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한국문학연구』 39호. 2010, 278면.

의 시스템의 총아인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군사문화의 잔재인 제복을 입고 근무한다는 것은 이준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통일된 질서로서 복종만을 전제로 그 명령만을 기다리게 마련인" 제복은 유년 시절 어머니가 자주 협박을 당하던 일본 순사의 제복과 시위를 막으려 덤비던 4.19 때의 검은 제복 그리고 학교 교문에서 등교를 막아섰던 푸른 제복과 연결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준은 제복을 혐오했다. 제복 착용은 단식의 고통을 참으며 극복하고자 했던 저항의 시간, 기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는 견딜 수 없는, 모순적 행태이다. 적응할 수 없는 것으로, 온몸으로 반응하는 거부의 정서가 쑥스러움이다.

'이준'의 정체와 행동양식에 혼돈을 주는 쑥스러움의 대상은 '여성적인 것'으로 수렴되고 외설로 표현된다. 살핀바, 여성적인 것의 의미는 복잡하다. 우선 여성적인 것은 미스 염으로 상징되는 이기적인 여성이자 외설적인 여성 이미지를 말한다. 동시에 자본주의 시스템에 포획된 소비만능주의 현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이는 이준이 견지하고 있던 익숙한 가치관에 혼란을 주고, 단식 경험과 진지한 허기 정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는 '세느'에서도 엄숙하다. 세느 마담의 상업용 허사와 젊은 대학생들의 가벼운 대화, 수다용 낙서에 대해서도 불편해하며 과거 자신의 대학 시절과 진지한 토론 장면을 회상하기도 한다. 자신의 육체적 쾌락을 위하여 선풍기를 끌어다 겨드랑이에 바람을 쐬는 미스 염을 닮은 세느 마담을 끔찍하게 여긴다. 그러나 그가 연민을 느끼는 왕과 윤일 그리고 은숙에 대해서는 각별하다. '나'는 감정의 우열로 판단하는 이분적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다. 남성/여성, 이상/현실, 진지/통속, 정신/육체, 연민/혐오, 단식/잡식, 순수/간교, 허기/쑥스러움으로 이분된다. 달리 정리하면 단식/허기/저항/혁명적/남성적으로, 간식/여유/안주/현실적/여성적으로 분리된다.

그의 쑥스러움의 정서는 분명 지성인의 면모를 담보한 것이나 문제점 또한 내포하고 있다. 자신과 동기들이 감내한 단식의 고통과 혁명적 허기

정동만이 바르고 숭고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자신의 정서와 관념적 사유인 느낌만을 정상이거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고만장한" 의식이 엿보인다.[19] 변화해가는 직장 동료 여성들의 모습에 과도하게 거부감을 보이는 것과 여대생을 미성숙한 여성 정도로 상정하고 대하는 태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방적인 독선과 오만이 전제되어 있다. 남성 우월 의식의 시대착오적인 인식도 드러난다. 불변의 기억과 가변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이준으로 인하여 소설의 진행은 더뎌지며 허기 정동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3. '허기' 정동의 탐문과 질문

소설 공간 또한 크게 이분된다. 주인물 이준이 쑥스러워 하는 현실공간(하숙집, 세느, 직장)과 심리공간이다. 심리(心理)공간은 이준의 내면공간으로 신문관과 대면하는 시간에 마련된다. 신문관이 이준을 찾아와 진술을 재촉하는 시간인 까닭에 심리(審理)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분적 공간구도는 주인물 '이준'을 지배하는 '허기' 정동의 실체를 탐문하게 한다.

신문관은 마치 '새벽 혁명군 같은 분위기'와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운 채 여러 가지 견장과 낯선 패용물들을 매달고 이준을 찾는다. 감정표현을 쉽게 읽어낼 수 없을 만큼 윤곽이 어둡고 애매한 모습의 그는 이준을 "어떤 반역 음모 사건의 피의자"로 호명하며 숨김없는 진술을 요구한다. '나'는 살기 위해 혐의를 벗어야 하는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야 한다. 신문관

19) 이청준은 '기고만장한' 이란 표현으로 김현의 문학론—문학은 인간에게 꿈을 꾸게 함으로써 인간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킨다—에 동조하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정답처럼 굳어버리는 것에 반대함을 드러냈다. 이청준은 문학적 자율성을 옹호하면서도 그것을 기준으로 기성세대와 선명한 경계선을 긋고자 하는 김현의 태도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김남혁, 『파라텍스트 이청준』, 케포이북스, 2015, 270면.

은 일종의 권력으로 주체에 작용(act)을 가할 뿐만 아니라 타동적인 의미에서 주체를 존재로 실연(實演)한다(enact).[20] '나'는 살아남기 위하여, 그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나'의 진술은 신문관을 만족시킬 수 없다. 신문은 반복되고 고백은 지연된다. '나'는 신문관의 요구인 구체적인 경험이나 감정을 진술하지 못한다. 오직 단식과 허기의 기억밖에 없다고 말한다. 무결을 증명하기 위한 '나'의 고백은 허기의 정동에 관한 기록일 수밖에 없다.

> 다행히도 오정 때가 한참 지나고 나면 웬일인지 그 허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머릿속이 말똥말똥 맑아오며 몸까지 다시 가벼워졌다. (중략) 허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제 내 몸이 중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 가벼움과 선뜩선뜩 한기가 느껴지는 기분에다 배에서 조금씩 날을 세우기 시작한 통증과 긴장감들 그런 것이었는데, 특히 그 통증과 긴장감을 견디는 것은 묘하게 짜릿짜릿한 쾌감까지 느끼게 했다. (24)

태평양 전쟁이 휩쓸던 시절, 가난한 시골 마을의 아이들은 하루 두 끼 혹은 한 끼로 하루를 견뎌야 했다. 어린 소년 '이준'은 먹을 것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돌아다 보는 어머니의 눈길을 피해 연을 날리러 나가야 했다. 돌봄을 받아야 할 소년 이준을 밖으로 내모는 눈길은 어머니였다. 어린 이준이 겪은 허기 정동은 배고픔이라는 원초적 정서를 참으며 견디는 과정에서 알게 된 총체적 느낌이다. 수직관계의 좌절은 수평관계 동기간에 집중하게 된다.[21]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또래 집단 동기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연놀이를 하면서 배고픔을 견뎠다. 연을 날리며 배고픔을 정신력으로 극복해내는 과정에서 머리와 몸이 맑고 가벼워지고 다시 한기와 허기를 겪게 되는 통증과 긴장감을 견디는 것이 묘하게

20) 주디스 버틀러, 강경덕 · 김세서리아 옮김, 『권력의 정신적인 삶』, 그린비, 2019, 30면.
21) 줄리엣 미첼, 이성민 옮김, 『동기간』, 도서출판b, 2015, 55면.

짜릿짜릿한 쾌감임을 안 것이다.[22] 어린 시절의 '허기'는 강제적으로 내몰리게 된 배고픔의 시련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고통이자 쾌감의 느낌이다.

대학생이 되어 이준은 다시 허기에 처하게 된다. 어린 이준의 허기와 다른 점은 자발적 선택과 의지이다. 이준은 한·일 굴욕 회담 반대, 학원 자유 수호를 위하여 열정을 바쳤다. 단식은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는 그들이 취한 저항방식으로 허기 정동을 매개한다. 정동은 무한한 가능성과 역동성 혹은 그 전이 능력으로 사이의 한 가운데서, 즉 행위 하는 능력과 행위를 받는 능력에서 발생[23]하는 까닭이다.

> 나는 그 허기의 얼굴을 알고 있었다. 어렸을 때의 그 연의 외롭고 서글픈 얼굴, 출정 장정들을 환송하고 돌아오던 날의 그 눈물 나도록 지친 허기의 얼굴들 그리고 오랜 단식 시위 끝에 군용 트럭에 떠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던 동료 학생들의 그 허기에 찌든 얼굴들—, 그 얼굴들을 나는 이미 내 신문관에게 수없이 되풀이 진술했었다. 마치 내 온 젊은 생애가 모두 그 허기의 얼굴의 연속이었던 것처럼 ……(116)

"마치 내 온 젊은 생애가 모두 그 허기의 얼굴의 연속"인 것처럼 느끼는 이준에게 허기 정동은 자신의 생을 영위해 나가는 일종의 몸의 상태와 같다. 이와 같은 생명체의 조절과 조절 받은 삶의 상태를 다마지오는 항상성(homeostasis)[24]이라고 한다. 항상성인 허기는 그를 움직이고 보호하고 생존하게 하는 온몸과 의식에 장착된 방식으로 견딤과 저항의 실천적

22) 배고픔은 언제나 통찰에 이를 수 있는 독특한 형식의 고난으로 간주되었다. 단식이 진행되면 '행복감'에 빠지고 '감각이 비정상적으로 예리'해지고, 모든 것이 '의미있게' 보이고 신비주의로 기울다 무념무상의 상태에 빠진다고 한다. 샤먼 앱트 러셀, 곽명단 옮김, 『배고픔에 관하여』, 돌베개, 2016, 20-22면.

23) 그레그 · 그레고리 시그워스, 최성희 김지영 박혜정 옮김, 『정동이론』, 갈무리, 2015. 14면.

24) 안토니오 다마지오, 임지원 옮김, 『스피노자의 뇌』, 사이언스북스, 2007, 41면.

의식으로 지속된다. 그가 젊은 시절 대의(한일회담 반대)를 위하여 친구들과 연대한 '단식'이라는 투쟁의 방식은 제 몸의 뼈와 살을 깎아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 말을 쌓아가는 행동이다.[25]

'허기' 정동으로 연대한 대학생들은 권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신들의 비천한 위치를 단식으로 넘어서고자 했다. 단식과 고행에서 불행한 의식은 소비의 즐거움을 부정하고 배설을 거부하는 것과도 통한다. 반성적 태도로서 자신의 고귀한 행위의 바탕을 세우기 위한 의지의 공동체(a community of wills)안으로 들어간다.[26] 4.19의 성취로 '어떤 흔치 않은 가능성과 자긍심'을 느꼈고, '잔치와도 같은 폭식'을 즐겼으나 길지 않았다. 5.16 주체의 등장과 4.19 세력의 퇴각에 따른 거처 모를 패배적 느낌의 잔해가 이준이 표출하는 허기 정동의 자리에 가깝다.

소설에서 신문관의 존재는 다의적이다. 권력의 중개자이자 이준의 대타자이고 무엇보다 분석가이다. 분석가인 신문관은 이준에게 "당신은 이미 자신에게마저 정직해질 수 없어진 것이다", "추상 관념이 당신에게는 구체적인 현실에 앞서 지나치게 비대해 있다", "당신의 부단한 의심과 불복 그리고 당신의 그 끝없는 망설임과 정직해질 수 없는 위험한 추상적 관념이 음모의 가능성"이라고 말하며 다그친다.

분석가인 신문관의 지적은 주목을 요한다. 알듯이 분석가는 피분석자 자신의 독특한 진실이 치료에서 떠오르기를 욕망하는데, 분석가의 진실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진실이 떠오르기를 욕망한다. 왜냐하면 분석은 본질적으로 치료과정이 아니라 진실 탐구이며, 또한 그 진실이 항상 이로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27] 이준의 모호한 진술은 신문관의 사형 위협에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그가 세대론에 함입된 까닭에 '허기 정동'의 현실적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25) 이라영, 『정치적인 식탁』, 동녘, 2019, 176면.
26) 주디스 버틀러, 강경덕 · 김세서리아 옮김, 『권력의 정신적인 삶』, 그린비, 2019, 82-83면.
27) 달런 에반스, 김종주 옮김, 『라깡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161-164면.

생각된다. 그는 반복하며 주장한다. 그는 "오직 자기 세대만의 독자적 감정과 사고"이고 "어떤 특수한 사건이나 환경이 어떤 시기에 어떻게 뜻깊게 경험되었느냐는 것이 중심 문제"라고 말한다. 동시에 그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의 의지를 지녀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세대가 없는 사람이고 어느 한 시대도 제값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못 되구요"라며 강변한다. 우리 세대의 독자적 사고 경험이기에 따로 서술할 것이 없다는 맥락이다.

다마지오는 '느낌에 대한 느낌'을 정동으로 표현하며, 정동은 '느낌으로 변화되는 아이디어들의 세계'로, 정동은 '느낌을 안다는 느낌' 즉 '앎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준은 그의 자부심의 근거인 허기 정동에 대한 치열한 인식, 앎을 견지하고 있지 못하다. 허기 정동은 패배적 혁명의 시간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준이 방어적 자세로 구분한 '세대론'에서 회의적 반성적 태도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는 '이전 세대' '우리 세대' '이후 세대'로 거칠게 나누면서 '우리 세대'의 문제점을 고백한다. 이는 허기 정동에 대한 아픈 통찰로 읽힌다. '우리 세대'는 앞 세대의 그 엄숙하고 진지한 선택 결정성과 다음 세대의 무선택적 적응성, 두 요소를 다 아울러 지니는데, 이를 가능성과 좌절을 함께 겪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한다.

> 그래서 엄숙한가 하면 그걸 거꾸로 비웃고 선택하여 싸우려는가 하면 단념하고 적응하려 하며, 뭔가를 좀 진지하게 읽어보려 했다가도 금세 그것이 역겨워지고 마는, 그래서 늘 허둥대다 체념기가 앞서버리는 요령부득의 무기력한 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4.19의거와 5.16혁명은 그런 세대를 하나 만들어낸 것입니다. (140)

사실상 이준의 우리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진지한 선택 결정성이나 이후 세대의 무선택적 적응성 모두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준은 우리 세대를

“늘 허둥대다 체념기가 앞서버리는 요령부득의 무기력한 한 세대”라고 진단한다. 이는 묘하게도 지금 이준의 생활 태도와도 일치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문관은 그에게 ‘사형’이나 ‘뇌 대뇌 제거 수술’ 중 한 가지 선택을 제시한다. 불필요한 사고를 중지할 수 있는 뇌수 중 대뇌 기능의 일부를 제거하는 뇌수술을 권유하기도 한다. 여기서 신문관의 폭력성을 언급할 수 있겠으나, ‘수술 권유’의 파격적 제안은 내포작가 이청준의 의도로 읽힌다. 다마지오에 따를 때 이준의 주장은 관념에 속하는 자신의 느낌인 ‘자신의 뇌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사적인 현상’[28]일 수 있다. 신문관에게 있어 동어반복적인 그의 고백은 더이상 생생한 정황적 증거도 될 수 없고 구체적 사실성을 획득할 수도 없는 추상적인 토로에 불과하다. 지난 허기의 정동은 지금, 현실에서 무력하다. 이준에게는 다시, 사유와 경험을 나누고 꿈꿀 자신만의 새로운 정동이 필요해 보인다.

5.16으로 인해 박탈당한 4.19의 세대의 퇴색된 자긍심과 가능성처럼 이준은 현실에서 자리를 잃고 점점 밀려나고 있는 듯한 처지에 있다. 이것은 이준이 초래한 것이기도 하다. ‘박탈’은 근간을 잃어버리고, 점령당하고, 가정과 사회적 유대가 파괴되는 경험이다.[29] 이준은 ‘진짜 자기-정체를 밝히라는’ 신원 확인의 관례에 처해질 수 있는 삶의 위태로움(unlivability)에 있다.

다행히 이준의 사형선고는 유예된다. ‘이준’이 삶의 출구로 준비한 소설이 스스로를 구한 것이다. 신문관이 전한 각하의 전언에 의하면 ‘소설은 대개 가장 성실한 형식’으로 ‘거짓 없는 자기 진실을 말하게 되는 것’인 까닭에 소설이 채택되는 시간까지 이준에게 자유가 주어진 셈이다. 각하가 신뢰하는 소설은 성실한 형식, 거짓 없는 자기 진실에 있다. 알려진 바 소설은 반(反)규범적 유연성을 가진 장르로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검토하며 확립된 형식들을 재고하는 장르이다. 소설은 경험과 지식과

28) 안토니오 다마지오, 임지원 옮김, 『스피노자의 뇌』, 사이언스북스, 2007, 38면.
29) 주디스 버틀러×아테나 아타나시오우, 김응산 옮김, 『박탈』, 자음과 모음, 2016, 34면.

실천(미래)에 의해 결정되는 장르이다.[30] 새롭고 구체적인 고백의 장을 쓰길 원하는 신문관(혹은 내포작가)의 의도는 실현될 수 있을까. 이준은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체질화된 '항상성'인 허기는 수정될 수 있을까.

4. '항동성'인 허기, 생성의 정동

존재는 공간적 의미에서 존재의 장소화로 사고 되는데 그 본질이 장소 내지 본질의 장소성을 캐묻는다.[31] '이준'의 존재에 대한 객관적 인식은 '세느' 다방에서도 알 수 있다. 여대생들이 주로 찾는 '세느'다방은 자체로 소속이 없는 실업자 이준의 현재위치를 가리킨다. 이준은 이곳에서 '왕'이라는 남자를 주목한다. 왕은 '깊은 공복감을 견디고 있는 허기의 얼굴'을 지녔다.

> 그가 학생들 사이에서 주목하는 인물은 '왕'이다. 이유는 그에게서 '허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 헤아릴 수 없을 만치 깊은 공복감을 견디고 있는 허기의 얼굴이었다. (…) 뱃속의 허기가 배어 나아 독물기처럼 짙게 번져있었다. (116)

'이준'은 '왕'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읽으려고 한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사실적인 이야기는 자신을 절망스럽고 피곤하게 한다며 차라리 왕에 대해 꿈꾸고 싶어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왕에게 집중하며 그를 '별에서 온 사람' '왕'처럼 신성하게 생각한다. 왕의 허기를 읽으며 자신의 단식 경험

30)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옮김,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32면.

31) 슈테판 귄첼, 이기홍 옮김, 『토폴리지』, 에코리브르, 2010, 154면.

을 떠올린다. 그에게 연대감과 의무감을 느끼며 식염수 마시길 권하기도 한다.[32]

세느를 찾는 다수의 사람들은 '왕'을 미친 사람으로 보거나 심지어 변태로 생각한다. '왕'은 매일 세느 한 귀퉁이에 죽치고 앉아 나상(裸像)의 목각 여인을 정성 들여 만들며 소일한다. 나신의 여인은 성기가 확대되어 부풀려 있으며 하복부 쪽이 강조되어 있다. 프로이트는 물신주의적 주체를 거세의 가능성에 대한 모든 증거를 파괴하고, 이를 통해 거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물신을 또한 스스로 창조한다고 본다. '왕'의 여성 성기 조작은 일종의 물신주의(fetishism)로 볼 수 있다. 물신주의자는 물신의 도움으로 거세불안을 방어하고 이성애자가 될 수 있다.[33]

'나'의 상상과는 달리 현실 아래 드러난 '왕'은 무기력한 낙오자에 불과했다. 왕은 죽기 전 마침내 '무지하고 우악스런 양물을 치기만만하게 쳐들고 있는 남자의 형상'을 들고 '나'를 찾아온다. "내 단식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요? 그리고 이 노릇이 어떻게 끝이 날까요?"라며 절규하듯 고통을 호소한다. 왕은 세느에 머물러 있는 남자로,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 그가 창조한 목각들도 '세느와 이 동네에서 그가 본 남자와 여자들의 전부'에 불과했다. 세느에서 사라지기 전 '왕'은 "모두 부질없는 노릇"이었음을 토로한다. 왕이 놓지 않았던 남녀 성기 페티시즘을 통한 도착적 환영은 그를 정상 혹은 현실로 이끌지 못했다. '이준'은 왕을 직시하고 비로소 "현실과 몽상 간의 차이"를 깨닫는다.

왕의 미미한 존재성은 그가 소설 무대에서 사라지는 순간에도 모호하게 처리된다. 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음은 물론이고 죽음 여부도 소문처럼 떠돈다. 이준이 환영처럼 잠시 기댄 왕의 허기는 배고픔, 목마름, 고통 같은 원초적 상태에 공포 분노가 섞인 정서적 상태에 불과하다. 이준의

32)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공동체를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대감이나 의무감으로 한데 묶는다. 캐롤린 코스마이어 권오상 옮김, 『음식철학』, 헬스레터, 2020, 369면.

33) 조엘 도르, 홍준기 옮김, 『라깡과 정신분석임상』, 아난케, 2005, 18-19면.

기억 속에 남은 '허기'는 현실의 곤궁과 압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정신적 의지이자 연대와 공감의 흐름인 정동이었다. 완벽한 생성의 중단, 죽음일 뿐인 왕을 통해 '허기'의 본질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이준과 왕이 실제로 '단식'이란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허기 정동을 예각화했다면 윤일과 은숙의 허기는 경제적 결핍과 관계적 결핍에서 발생한다.[34] 경제적 결핍이 둘의 관계를 잠식한다. '윤일'은 직장을 갖지 않고 무일푼으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3류 시인이고, '은숙'은 성악과를 나왔으나 자신의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음악 과외선생이다. 처지가 비슷한 둘은 상대방의 허기를 읽고 사랑한 것이었으나, 끝내 서로를 채울 수 없었다.

윤일과 은숙의 사랑은 모순적이다. 밤에는 육체적으로 뜨겁게 엉키면서 낮엔 데면데면하다 서로를 역겨워하고 지겨워한다. 두 사람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관념과 리비도처럼 모순적이다. 육체적 결합과 쾌락의 '정서'와 전후로 와닿는 관계의 해석, '느낌'의 진폭이 컸다. 이러한 충돌이 사랑의 특징인 진정한 전이와 정념을 불가능하게 한다.

> 그런 날밤 우리는 그렇게 서로 역겨워하며 미워하려던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의 누구보다도 격렬한 밤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우리는 다시 그 간밤의 일을 잊고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밤의 일 때문에, 그것까지 더욱 역겹고 지겨워하면서요. 마치 둘이 함께 살림을 내는 일이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듯이. (….) 그러니 그건 영락없는 간통일 수 밖에요. 함께 살림을 내지 못하고 그렇게 늘 숨어 지내야만 하는 우리의 밤이 말입니다. (….) 그 여잔 나와 수 없이 간통을 하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수치스럽고 못난 간통의 상대로 내내 간통만 당하다 죽어간 거니까요. (214)

34) 주창윤, 『허기사회』, 글항아리, 2013, 12면.

윤일과 은숙의 반응은 프로이트가 말한 '사랑 대상'(love-object)의 상실에서 애증 병존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흡사하다. 애증병존의 모든 갈등은 대상을 비난하고, 경시하고 심지어는 대상을 제거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리비도의 집착을 느슨하게 한다는 주장과 일정 부분 흡사하다.[35] 이러한 장애요인은 무엇보다 당사자 자신에게 있다. 은숙과 윤일이 갖지 못한 자아 이상(l'idéal du moi)이 결여된 탓이다. 자아 이상은 사랑의 늘임, 즉 상징계로 사랑을 기울이는 것이 의거할 수 있을 중심점으로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36]

윤일에 의해 둘의 사랑은 '간통'으로 폄하된다. 둘 다 미혼이고 배우자가 없으니 간통이란 법률적 용어는 정확하지 않으나, 숨어지내야 하는 충분하지 않은 관계라는 면에서 부합된다. 둘의 관계는 은숙이 말하는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무대 뒤의 소외된 상황과 부합한다. 세느 마담의 귀띔처럼 "시시하게 저희끼리 애인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사랑은 당사자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자긍과 성취를 느끼지 못하는 '말초적 허기'에 머물러 있다. 은숙은 끝내 자살한다.

> 아무것도 더 남은 일이 없을 때 죽음을 맞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도 부질없는 궁금증을 남기고 싶지 않고. 당신에 대해서 만이라도 내 죽음에 어떤 이유를 갖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214) 잊어버리고 당신만이라도 견디어내세요. 그걸 믿고 빌어드리며 난 이제 가보겠어요. 그럼 안녕히. 내 사랑! 당신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보며 은숙이 씀. (217)

은숙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알듯이 우울증은 바로 인정할 수 없는 상실의 효과이다.[37] 은숙은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

35) 주디스 버틀러, 강경덕 · 김세서리아 옮김, 『권력의 정신적인 삶』, 그린비, 2019, 250면.
36) 장 알루슈(Jean Allouch), 박영진 옮김, 『라캉의 사랑』, 세창출판사, 2019, 83면.

어요. 허기와 피곤뿐이에요." 절망하면서도 자기 노래의 무대를 꿈꿔 온 다른 사람들, '우리 같은 가난뱅이들'과 함께 앓고 있는 고통이기에 견뎌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연인 윤일의 질문이 결정적으로 그녀를 자극하고 만 것이다. "차제에 음악 공부를 더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윤일의 비현실적인 조언이 그녀의 수치심을 자극하고 만 것이다. 수치심은 어떤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반응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자신과 자신의 삶을 불충분하게 절감하게 한다.[38] 은숙의 절망은 무엇이었을까. 윤일과의 소통 불가능성이 아니었을까. 두 사람의 관계는 다마지오가 역설한 '느낌을 안다는 느낌' 즉 정동되지 못한 채 서로에 대한 앎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인간으로서의 이상적인 생활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육체적 생활, 정신적 생활 및 도덕적 생활의 향상과 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자신의 육체, 정신 및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발육을 도모하여 기꺼이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생활의 향상과 발전을 꾀하기 위한 생활이다.[39] 은숙의 삶은 당장의 생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불안과 고통에 처해있다. 영육의 결핍인 허기라는 정서에 잠겨있을 뿐 아니라 소통 불가능성 관계의 결핍도 넘기 힘들다.

'은숙'은 윤일에게 유서인 편지와 문학잡지 정기구독권을 남긴다. 유서를 남기는 이유는 자신의 죽음에 궁금증을 남기지 않고, 죽음에 어떤 이유를 갖고 싶어서이다. 유서의 진정한 메시지는 "잊어버리고 당신만이라도 견디어내세요. 그걸 믿고 빌어드리며 난 이제 가보겠어요."에 있다. 자신은 견디지 못하고 죽음을 통해 불안으로부터 달아났으나, 삶의 대안을 윤일이 마련했으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남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은숙은 윤일을 "내 사랑!"이라고 부르며 둘의 관계를 분명하고 당

37) 위의 책, 242-244면.

38)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338-339면.

39) 가와카미 하지메, 송태욱 옮김, 『빈곤론』, 꾸리에, 2009, 185면.

당하게 밝힌다. 윤일은 은숙을 묻고, 고향으로 내려간다.

왕의 죽음(실종), 은숙의 죽음 그리고 윤일의 낙향으로 허기의 패퇴적 지형이 분명해졌다. 변화하는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한 허기의 구원은 개인의 결단, 역량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청준이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 세대, 집단적 정동 논리 너머 개인의 고유한 자서전 혹은 각자의 새로운 서사를 완성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존재는 오로지 그 자신의 존재론적 사유의 장소에서 존재를 변용(affecter)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40] 바로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사라질 수 없는) 출현의 본질이다.

그런 까닭에 왕의 사라짐, 은숙의 죽음과 윤일의 낙향이 갖는 의미는 심대하다. 자신들의 장소를 갖지 못하고 구축하지 못한다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홀로 남은 이준은 마치 어린 시절 자신이 오래 날리던 연을 태우거나('은숙') 달아난 연('윤일')을 마음에 묻는 것과 같은 이별의 절차를 경험한다. 남겨진 '이준'은 이제 젊은 시절 순정을 바쳐 견뎌냈던 '단식'의 결기, 허기 정동의 의미를 현실과의 맥락에서 다시 점검해 볼 상황에 있다. 단식 투쟁가들은 단식이 약자에게는 힘을, 소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강자에게는 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단식의 목소리는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불의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일어났다.[41] 단식은 꿈을 먹는 작업이고 분명한 의미를 담보한 허기 정동의 전초였다. 앞에서 살폈듯이 이준은 이제 지난 혁명과 세대론의 허구에서 자신이 기댈 것이 없는 허망을 자각하고 있다. 이제 자신을 향한 선택적 결단, 자발적 허기를 가져야 할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그의 내밀한 자각은 소설 발표로 증명된다.

이준이 발표한 소설은 친구의 이야기를 소재로 쓴 것이다. 두 여성을 동시에 사랑한 남자의 결정 장애를 다루고 있다. 소설은 그가 선택을 포

40) 알랭 바디우, 박정태 옮김, 『일시적 존재론』, 이학사, 2018, 235-236면.
41) 샤먼 앱트 러셀, 곽명단 옮김, 『배고픔에 관하여』, 돌베개, 2016, 99-100면.

기하고 두 여자를 부른 다음 자신은 집을 나가버리는 것으로 끝난다. '이전 세대'의 '엄숙하고 진지한 선택 결정성'과 '이후 세대'의 '무선택적 적응성'이 뒤섞여 명쾌하지 않은 '우리 세대'의 모순적 현실을 소설 형식에 담아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자기도취와 오만에 빠져 자신을 성찰하지도, 현실에 적응할 수도 없는 스스로를 포함한 일군의 존재들을 향한 분명한 일침이다. 전반적 성찰과 전환적 모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학작품에는 상황과 이야기가 있다. 특히 회고록 고백록의 경우 필연적으로 자기 발견과 자기 인식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자서전이든 소설이든 시든 작가의 세상과의 교류 속에서 만들어진다. 교류는 경험을 낳고 경험은 지혜를 낳으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지혜-더 정확히 말하면, 지혜를 향한 정진-이기 때문이다.[42] 소설 발표 이후 이준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고 '시장기'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두려움'은 소설에 대한 애착과 평가에 대한 염려를 의미한다. 자신의 현실적 입지도 포함된다. '시장기'라는 표현은 주목을 요한다. 소설에서 주로 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시장기'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연이어 표현한다.

> 점심부터 굶은 배에선 서늘한 시장기가 심신의 피로감과 어울려 저릿저릿 기분 좋은 통증을 빚고 있었다. 나는 열린 창문으로 밤하늘을 쳐다보고 누워 그 시장기를 즐기기 시작했다. (279)

'이준'은 자신이 소설을 발표했음을 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집에 돌아와 쉬면서 시장기를 느낀다. 그러면서 젊은 대학생 시절, 세상에 대해 희망을 품고 혁명 의지를 다지며 강의실 '열린 창문' 아래서 느꼈던 '서늘한 시장기'를 병치한다. 이는 지난 허기에 대한 반추가 아니다. 지금 몸이 느끼는 생생한 시장기를 해석하기 위해 젊은 대학생 시절 희망

42) 비비언 고닉, 이영아 옮김, 『상황과 이야기』, 마농지, 2023, 18-19면.

찬 허기를 부른 것이다. 이준은 다시, 세상을 꿈꾼다. 진지하게 몸과 대면한다는 것은 과거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43]라는 지적은 탁견이다.

이제 그를 감싸고 있던 지난 허기의 항상성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항동성(homeodynamics)의 도입이다. '항동성'은 고정된 상태의 균형보다 찾고 수정하는 과정을 암시하기 때문이다.[44] 그에서 에필로그에 다시 첨부된 이준의 '쑥스러움'의 정서는 첫 장의 쑥스러움과는 달리 해석할 수 있을 듯하다. 프롤로그의 '쑥스러움'이 자신의 허기 정동에 갇혀 타자를 이분하고 비난하기 위한 거리두기라면 에필로그의 쑥스러움은 자신의 위치 감각, 자기 존재 각성에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이곳에 머물 수 없는, 그는 '시장기'를 채울 자신의 장소를 찾아 새롭게, 성큼 나설 것이다.

5. 맺음말

이청준 소설『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에 나타난 '허기'의 정동을 서술하였다. 주인물 '이준'을 비롯한 작중 인물들의 특이한 '허기' 정동을 규명하기 위해서 안토니오 다마지오가 정립한 '정서-느낌-정동'의 순환적 과정을 통하여 접근하였다. '허기'는 육체적, 정신적 결핍의 상태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다마지오의 '정동'은 정동의 신체성을 강조한 것으로 인간 존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 문제인 심신 문제에 대한 정치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43) 이토 아사, 김경원 옮김,『기억하는 몸』, 현암사, 2020, 239면.

44) 스티븐 로즈(Steven Rose)가 같은 이유로 항동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도입. (Steven Rose, Lifelines: Biology Beyond Determinism(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안토니오 다마지오, 임지원 옮김,『스피노자의 뇌』, 사이언스 북스, 2007. 360면. 재인용.

여대 근처에서 하숙을 하는 '이준'은 '쑥스러움'이란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정서를 드러낸다. '쑥스러움'은 그가 상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향한 거부감의 토로이다. 이는 허기 정동의 일환으로 기억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그의 무의식적 관념인 느낌을 표출한 것이다. 이준은 쑥스러움의 대상을 '여성적인 것'으로 치환하고, '외설'로 공격한다. '여성적인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포획된 소비만능주의적인 현실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고, 여성 육체와 시대의 논리에 신속하게 부응하는 새로운 여성군을 포괄한다.

주인물 '이준'의 특이한 '허기' 정동은 그 시절을 산 동기들과 함께 체험한 것이다. 어린 이준이 겪은 '허기'는 일차적으로 강제적으로 내몰린 배고픔이란 원초적 정서이다. 이를 견뎌내는 과정에서 알게 된 쾌감은 '느낌'으로 각인된다. '이준'이 대학생이 되어 선택한 자발적 허기는 현실 부조리에 저항하는 방법적 실천인 단식을 수행하면서 의지의 공동체와 공감, 연대하면서 이룬 가능성과 역동성의 정동으로 펼쳐진다.

작중인물인 '왕'과 '윤일', 그리고 '은숙' 또한 허기 정동에 사로잡혀 있다. 세느 다방에 죽치고 앉은 '왕'은 현실적 생성을 포기하고 있다. 그의 단식이 무엇을 향하는지조차 알 수 없다. 페티시즘의 도착적 환영마저 그를 현실로 끌어내지 못한다. 연인 관계인 윤일과 은숙의 불안정한 관계는 경제적 결핍과 관계적 결핍에서 발생한 것이다. 두 사람간의 허기 정동은 정서와 느낌의 낙차에 따른 것이다. 쾌락의 정서와 전후로 닿는 느낌의 진폭이 달랐다. 이러한 충돌이 진정한 전이와 정념을 불가능하게 한다. 세느 다방의 '우리'는 해체된다. 왕은 사라지고, 은숙은 죽고, 윤일은 낙향한다. 그들은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지도 못하고 자신에 맞는 꿈을 찾지도 못한 채 상징적 죽음에 처한다.

왕과 윤일, 은숙의 죽음은 이준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한다. 현실과 몽상간의 차이를 깨닫는다. 실업자 이준은 신문관으로 인해 삶의 위태로움에 처해있다. 관념이 되어 버린 '허기' 정동의 수정이 긴요하다. 그는 가

장 성실한 형식이자 거짓 없는 자기 진실이라 말할 수 있는 소설을 발표하며 집요한 신문관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유예된다. 이준의 소설은 지난 시간에 대한 객관적 성찰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주관적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고정된 상태의 균형보다 찾고 수정하는 과정을 암시하는 항동성의 적극적 도입은, 자신의 존재 감각을 각성하고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과 변화의 정동 동력으로 작동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텍스트

이청준『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문학과 지성사, 2012.

2. 주요 이론서

알랭 바디우, 박정태 옮김,『일시적 존재론』, 이학사, 2018.

안토니오 다마지오, 임지원 옮김,『스피노자의 뇌』, 사이언스북스, 2007.

안토니오 다마지오 고현석옮김,『느끼고 아는 존재』, 흐름출판, 2021.

캐롤린 코스마이어 권오상 옮김,『음식철학』, 헬스레터, 2020.

달런 에반스, 김종주 옮김,『라깡 정신분석 사전』, 인간사랑, 1998.

재닛 하디 · 도씨 이스턴 지음, 금경숙 · 곽규환 옮김,『윤리적 잡년』, 해피북미디어, 2020.

장 알루슈, 박영진 옮김,『라캉의 사랑』, 세창출판사, 2019.

조엘 도르, 홍준기 옮김,『라깡과 정신분석임상』, 아난케, 2005.

주디스 버틀러 × 아테나 아타나사오우, 김응산 옮김,『박탈』. 자음과모음, 2016.

주디스 버틀러, 강경덕 · 김세서리아 옮김,『권력의 정신적인 삶』, 그린비, 2019.

줄리아 우드, 한희정 옮김,『젠더에 갇힌 삶』,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

줄리엣 미첼, 이성민 옮김,『동기간』, 도서출판b, 2015.

마사 너스바움, 조계원 옮김,『혐오와 수치심』, 민음사, 2015.

멜리사 그레그 · 그레고리 시그워스, 최성희 · 김지영 · 박혜정,『정동 이론』, 갈무리, 2015.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서경희 박유미 옮김,『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슈테판 귄첼, 이기홍 옮김,『토폴리지』, 에코리브르, 2010.

로버트 보콕, 임건열 옮김,『소비—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시공사, 2003.

샤먼 앱트 러셀, 곽명단 옮김,『배고픔에 관하여』, 돌베개, 2016.

비비언 고닉, 이영아 옮김,『상황과 이야기』, 마농지, 2023.

가와카미 하지메, 송태욱 옮김,『빈곤론』, 꾸리에, 2009.

이토 아사, 김경원 옮김,『기억하는 몸』, 현암사, 2020.

Lacan, Jacques, *ÉCRITS*, Trans. Bruce Fink, N.Y.: Norton, 1998. p.83.

3. 국내 저서와 인용 논문

권보드래, 「4월의 문학혁명, 근대화론과의 대결」, 『한국문학연구』 39집, 2010, 278면.
김남혁, 『파라텍스트 이청준』, 케포이북스, 2015.
김종주 옮김, 『라깡 정신분석의 핵심용어』, 하나의학사, 2003.
연남경, 「남성 주체의 수치심과 윤리의 행방- 이청준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의 여성 재현에 주목하여」, 『이화어문논집』, 제49집, 2019, 145면.
이라영, 『정치적인 식탁』, 동녘, 2019, 176.
정미숙, 「'정동'은 '역동'이다」, 『비평과 이론』, 통권 제41호, 2017, 340면.
주창윤, 『허기사회』, 글항아리, 2013.
홍정선, 「소설의 원형, 원형의 소설」, 『씌어지지 않은 자서전』, 문학과 지성사, 2014, 312면.

<Abstract>

The Affect of Hunger
－A Study on Lee Cheong-joon's『Unwritten Autobiography』

Jeong, Mi-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ffect of 'hunger' that implicitly dominates Lee Cheong-joon's novel『Unwritten Autobiography』.

In the novel, 'Lee Jun' is uneasy about his living in lodgings in the vicinity of a women's college. This embarrasses him. Here, 'embarrassment' is the criticism of undiscriminative scenes that he faces around that college and the repulsion of things that do not satisfy his imagined standards. His behavior in this way reflects a subconscious adherence on which his failure to keep balance between memory and reality exists. As far as ‘Lee Jun’ is concerned, 'hunger' is a unique affect that keeps captivating him from childhood through college days. The affect is what he empirically shares with peers of his time. When a child, 'hunger' is merely a feeling that forces ‘Lee Jun’ to face a very basic emotion of famine, and ironically leads him to learn pleasure from endurance of that emotion. When in college, 'Lee Jun' chooses voluntary hunger that is embodied as fasting which he painstakingly practices to resist absurdities in the reality. For the protagonist, that hunger represents an affect that encourages him to substantialize possibilities and dynamics under sympathy and cohesion with a will-centered community.

'We' at Seine coffee house are broken up. The king(‘Wang’) vanishes, Eun-sook is dead and Yoon-il comes down to hometown. Not only successful in adaptation to changes in the reality, but also failing to find

out matchable dreams. they end up being symbolically dead. Meanwhile, putting out a fiction that is most sincere, honest and authentic to himself suspends Yi Jun from death. The novel examined in this study implies that it's important to modify the affect of 'hunger' that is already positioned into a notion. The modification may need a positive acceptance of homeodynamics that calls for finding and revising rather that balancing in a fixed way. In doing so, it could initiate a new affect that involves movement and change towards awakening and settling the sense of self-existence.

Key words: Lee Cheong-jun, Emotion, Feeling, Affect, Hunger, Antonio Damasio, Homeostasis, Homeodynamics

투 고 일 : 2024년 2월 13일 심 사 일 : 2024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 2024년 3월 12일 수정마감일 : 2024년 3월 25일